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

박 선 영¹⁾

양 수 진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와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325명(남: 149명, 여: 17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M-plu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을 돌보는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직접 경로(남성의 경우만 정적으로 유의미), 지각된 불공정성을 매개로 한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간접 경로에서(여성의 경우만 완전매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돌봄 경험보다는 이에 따른 지각된 불공정성이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부모화 경험을 세부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상이한 발달 경로를 확인하여,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화 경험이 갖는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모화, 지각된 불공정성, 대인관계 유능성, 공감능력, 다집단 분석

* 본 논문은 박선영(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 sujinyang@ewha.ac.kr)

I. 서 론

한국 사회에서 ‘철든 아이’는 아이를 칭찬할 때 으레 사용되는 용어로, 자신을 절제하며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가정의 안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특히 자녀 스스로도 자녀로서의 도리로 ‘철뚝’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이장주, 최상진, 2003). 그러나 실제 발달 단계에 비해 사회·정서적으로 조숙한 발달을 추구하는 ‘철든 아이’의 모습이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적응을 예측할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철든 아이’의 성숙한 태도는 외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아이의 내면적 취약성이 간과되고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키며, 과도하게 양보하는 경험에서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책임감을 느끼며,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발달 과업은 놓칠 수 있는 것이다(조은영, 정태연 2004). 선행 연구에서도 ‘철든 아이’의 경험이 이후 발달단계에서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등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Teyber & McClure, 2014).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모의 역할을 함께 거들 수 있는 성숙한 아이를 선호하며, 각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대물림되고 있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한국 사회에서 ‘철든 아이’와 관련된 가족 관계 내 역동으로 ‘부모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화(Parentification)는 부모-자녀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가정의 안녕을 위해 자녀가 부모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 가족 내 역

할 반전을 의미한다(Chase, 1999). 부모화 경험은 자녀가 제공하는 돌봄의 유형에 따라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으로 나뉠 수 있다(Hooper, 2008). 도구적 돌봄(Instrumental caregiving)은 가정의 물리적 안녕을 위한 보살핌으로,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가사 노동,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돌봄(Emotional caregiving)은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정서적 보살핌을 의미한다(Jurkovic, 1999). 부모화된 자녀는 전반적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우울과 불안, 높은 스트레스, 수치심과 죄책감 등의 정서적 취약성을 보인다(강지희, 최명선, 2009; Byng-Hall, 2008; Katz, Petracca, & Rabiowitz, 2009).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 피하적 성격, 자기애성 성격(Hooper, 2008; Wells & Jones, 2000), 가면 현상(Castro, Jones, & Mirsalimil, 2004)과 부적절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고립감(Hooper & Wallace, 2010; Katz et al., 2009) 등의 어려움도 함께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적응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모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정서와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Byng-Hall, 2008; Hooper, 2008).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는 기존의 부모화 척도가 하위 요인에 따라 성격이 다름에도 단일요인으로 통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의 발견이 어려울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도구적, 정서적 돌봄을 포괄

하여 부모화의 현상적 경험 수준을 측정하는 ‘부모화 돌봄’과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 내 역할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각된 불공정성’의 2요인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부모화 돌봄은 긍정적 요인, 지각된 불공정성은 부정적 요인으로서 각각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강선모, 2015; Kuperminc et al., 2013). 하지만 부모화 돌봄을 구성하고 있는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을 각각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도구적 돌봄은 높은 스트레스, 사회적 기술의 부족 및 소외감 등과(Early, Cushway, & Cassidy, 2006; Gray, Robinson, & Seddon, 2008), 정서적 돌봄은 우울 및 불안, 불안정 애착, 강박적 보살핌(Hooper & Wallace, 2010; Katz et al., 2009) 등의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지각된 불공정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구분되었다는 이유로 부모화 돌봄 현상을 긍정적 변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Jurkovic(1999)은 부모화를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 유아화로 분류하며, 객관적으로 동일한 양상의 부모화 돌봄일지라도 자녀의 발달 단계, 요구되는 돌봄의 양, 가족 구조 등의 개인적 특성, 지역사회 분위기, 전통 문화 등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개인에게 서로 다른 경험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즉, 부모화는 현상의 경험 수준 뿐 아니라 개인의 배경적 요소를 고려한 주관적 경험의 수준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 분위기상, 가족을 돌보는 행동이 자녀에게 마땅하게 요구되며 부

모-자녀 관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화 돌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 어떠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지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자신과 외부 체계에 대해 탐색해나가는 시기(Steinberg & Morris, 2001), 적응적 발달을 위해 성인의 애정과 감독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필요하다(Fonagy, 2005). 하지만 청소년기에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몰두할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가족의 관심과 지도를 균형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도 자신의 욕구를 소외시키고 발달과업을 등한시할 수 있기에(Teyber, 2006), 청소년기의 부모화 경험은 이후 발달단계까지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se, 1999; Teyber & McClure, 2014).

부모화 돌봄은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유지해 가는 역동이라는 점에서, 이후 대인관계의 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때문에 성장기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삶 전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특히 성인 진입기는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를 마주하는 단계로, 대인관계 능력이 더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Arnett, 2000).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관계의 질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Spitzberg & Cupach, 1989).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 삶에 대한 만족감(Demir et al., 2012)을, 대인관계에서 신뢰감, 만족감(Riggio & Reichard, 2008), 커리어 영역에서는 성취감을 보이는 등(Baron & Tang, 2009) 적응적인 모습을 보고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족 분위기, 애착관계, 가족 분화 등의 가족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Anderson & Tucker, 2000; Koesten, 2004), 부모화 돌봄 또한 불안정 애착, 부적절한 관계 기술, 관계 불만족 등의 부정적 대인관계를 예측한다(Burton, 2007; Castro et al., 2004). 이는 부모화 돌봄에서 비롯된 부정적 관계 도식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화된 자녀는 가족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는 소외시킨 채 가족을 보살피고자 노력한다(Wells & Jones, 2000).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될 경우, 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가족 관계에 대한 불신, 심리적 불편감 등 부정적 도식이 형성될 수 있다(Shannon, 2014).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며(Chase, 1999), 나아가 대인관계 능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vine, 2009).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부모화 돌봄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인 진입기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화 돌봄 경험이 현상적 경험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스스로 부모화 돌봄 경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할로서 지각된 불공정성은 부모화 돌봄 행동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간 역할의 분배가 윤리-맥락적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보여준다(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교류적 스트레스 이론(Transactional model of stress)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 요인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이후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7). 이를 부모화에도 적용시켜볼 수 있는데, 부모화는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에 대한 평가인 지각된 불공정성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Kuperminic et al., 2009). 지각된 불공정성은 자기비난과 낮은 자아정체감, 자아분화를 설명하고(문은미, 최명선, 2008; Jankowski, Hooper, Sandage, & Hannah, 2013; Katz & Nelson, 2007), 정서적 고통,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예측한다(Toro, Schofield, Calderon-Tena & Farver, 2018). 또한 Jankowski와 동료들(2013)은 지각된 불공정성이 높은 수준의 부모화 돌봄에서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화 돌봄의 부정적 결과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이 주요한 매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부모화 돌봄과 지각된 불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되, 객관적 사건과 이에 유발되는 주관적 평가의 인과적 경로로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부모화 경험을 어떻게 회고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화 돌봄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Hooper, 2008; Jankowski et al.,

2013).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는 공감능력에 의해서도 매개될 수 있다. 공감능력은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관점으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Switankowsky, 2000), 긍정적으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Burnette et al., 2009). 한편 지속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는 자녀들은 내면적으로 불안, 수치심과 죄책감,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지만(Byng-Hall, 2008; Katz et al., 2009) 이를 해소하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Jurkovic, 1999). 또한 경계가 분명하지 못했던 가족 내 역동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특징을 보인다(Wells & Jones, 2000). 이러한 모습을 고려했을 때, 부모화 경험은 안정적인 정서적 토대 및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기반으로 발달될 수 있는 공감능력(Lough et al., 2006)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사회 문화적으로 개인에게 기대되는 가족 내 역할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김지영, 최상진, 2003), 가족을 돌보는 경험인 부모화도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화 돌봄 경험(도구적, 정서적)과 지각된 불공정성의 정도에서 성차가 보고되어 왔으며(Hooper, Tomek, Bond, & Rief, 2015),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예측하는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DiCaccavo, 2002;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구체적으로 유순화(2012)는 부모화와 가족건강성 간의 관계에서 여성은 유의미한 부적관계 보였지만 남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김은영(2009)은 여성은 지각된 불공정성이 수치심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지만, 남자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에서 성차의 가능성이 일관되지 않은 연구도 있어(조은영, 정태연, 2004) 보다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 또한 사회화 과정 중 하나로, 이에 따른 사회 정서적 발달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고, 다집단 분석을 통해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성장기 특히 청소년기 부모화 돌봄 경험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며, 둘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이 단순매개효과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을 돌보는 행동이 긍정적 덕목으로 요구되는 유교문화권의 한국 사회에서 부모화 경험과 지각된 불공정성의 관계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구조적 관계 내에서 성차를 규명하여,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화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장기 부모화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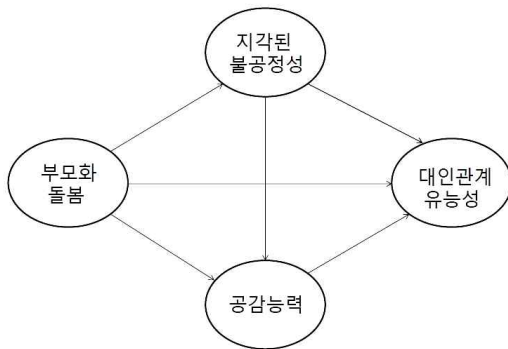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은 각각 성장기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이 성장기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이중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으로 매개된 성장기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25세의 성인 진입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보상으로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였다.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서울 소재의 3개 대학에 방문하여 직접 설문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방

식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 총 352명의 자료를 수거하였으며, 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27명의 자료를 제외한 32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49명(45.8%), 여자 176명(54.2%)으로, 학년은 대학교 4학년(93명, 28.6%)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80명, 24.6%)이 높게 보고되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155명, 47.3%)이 가장 많았고, 중상(98명, 30.2%), 중하(46명, 14.2%) 순으로 보고되었다.

2. 측정도구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의 측정을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개발하고 한나리, 이동귀(2010)가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The Korean version of Experiences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를 사용하였다.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 총 31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부모화 돌봄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가족돌봄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를 김선영(2017)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과거와 현재의 부모화 경험을 구성되며, 하위요인으로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지각

된 불공정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과거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과거 부모화 척도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Jurkovic 등(2001)의 연구에서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이 부모화 돌봄으로 묶여지고, 지각된 불공정성과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부모화 돌봄의 측정을 위해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으로 구성된 부모화 돌봄 문항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척도와 동일한 하위요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방사 알고리즘을 통한 문항 묶음 방법을 사용하여(Cattell & Burdsal, 1975) 네 가지 하위요인(부모화 돌봄1, 부모화 돌봄2, 부모화 돌봄3, 부모화 돌봄4)으로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총 17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돌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부하량은 .68 ~ .78, 분산추출지수(AVE)는 .57, 개념 신뢰도(CR)는 .84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지각된 불공정성

앞서 설명한 가족 돌봄 의무 척도의(FRS-A) 하위요인에서 부모화 돌봄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지각된 불공정성 문항을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척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사알고리즘을 통해 세 가지 하위요인(지각된 불공정성1, 지각된 불공정성2, 지각된 불공정성3)으로 문항묶음을 진행하였다(Cattell & Burdsal, 1975). 본 척도는

총 6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불공정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87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보였다. 요인부하량은 .80 ~ .83, 분산추출지수(AVE)는 .68, 개념 신뢰도(CR)는 .86으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한 척도를 허재홍과 이찬중(2010)이 번안한 한국어판 공감지수 척도(Korean Empathy Quotient: K-EQ)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척도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구조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Allison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방사 알고리즘을 통해 세 가지 하위 요인(공감능력1, 공감능력2, 공감능력3)으로 문항묶음을 진행하였다(Cattell & Burdsal, 1975). 본 척도는 총 1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84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보였다. 또한 요인부하량은 .79 ~ .84, 분산추출지수(AVE)는 .66, 개념 신뢰도(CR)는 .85를 나타내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산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변인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로,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구조 모형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

다(Kline, 2015).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M = 97.12$, $SD = 18.26$), 부모화 돌봄($M = 33.98$, $SD = 7.46$), 지각된 불공정성($M = 12.37$, $SD = 3.95$), 공감능력($M = 60.81$, $SD = 8.64$)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r = -.11$, ns)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지각된 불공정성($r = -.26$, $p < .01$)과 부적상관을, 공감능력($r = .49$,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화 돌봄은 지각된 불공정성($r = .37$, $p < .01$)과 정적 상관을, 공감능력($r = -.12$, $p < .05$)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불공정성은 공감능력($r = -.21$, $p < .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평균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325$)

	1	2	3	4
1. 대인관계 유능성	1			
2. 부모화 돌봄	-.11	1		
3. 지각된 불공정성	-.26**	.37**	1	
4. 공감능력	.49**	-.12*	-.21**	1
평균	97.12	33.98	12.37	60.81
표준편차	18.26	7.46	3.95	8.64
왜도	-.12	.29	.41	-.31
첨도	.09	-.33	-.11	.31

* $p < .05$.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검정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대인관계 유능성	1			
2. 부모화 돌봄	.05(-.21 ^{**})	1		
3. 지각된 불공정성	-.17 [*] (-.29 ^{**})	.45 ^{**} (.31 ^{**})	1	
4. 공감능력	.52 ^{**} (.50 ^{**})	-.10(-.14)	-.21 ^{**} (-.23 ^{**})	1
평균	101.23(93.63)	33.45(34.42)	11.62(13.00)	60.54(61.05)
표준편차	17.35(18.33)	7.05(7.79)	3.75(4.02)	8.82(8.51)
<i>t</i>	3.82 ^{***}	-1.17	-3.19 ^{***}	-.53
<i>d</i>	.43	-.017	-.35	-.06

주. 괄호 밖은 남자집단, 괄호 안은 여자집단의 값임. (남 $N = 149$, 여 $N = 176$)

* $p < .05$, ** $p < .01$, *** $p < .001$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불공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집단은 여자 집단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으며,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t = 3.82, p < .001$). 반면 여자 집단은 남자 집단보다 지각된 불공정성의 수준이 높으며,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t = -3.19, p < .001$). 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측정 모형의 검정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살펴보았다. 검정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2 값은 224.78($df = 80, p < .001$), 적합도 지수인 CFI는 .93, SRMR은 .06, RMSEA는 .08(90% CI = .06 ~ .09)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은 추정하고자 하는 표본의 크기,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함께 참고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함께 살펴보는 절대적 적합도인 RMSEA와 SRMR 지수 그리고 상대적 적합도인 CFI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RMSEA는 .08 이하일 경우 수용 가능한 적합도, SRMR은 .08이하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e, Cudeck, Bollen, & Long, 1993). CFI는 .90 이상일 경우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SRMR이 .08 이하인 동시에 CFI가 .095 이상일 경우 모형 적합도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판단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각 측정변인별 요인부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70 이상일 경우 수렴타당도를 확보될 수 있다(Kline, 2015).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요인부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화 돌봄 → 지각된 불공정성 → 대인관계 유능성	-.09**	-.15	-.03
부모화 돌봄 → 지각된 불공정성 → 공감 능력 → 대인관계 유능성	-.06***	-.10	-.03
부모화 돌봄 → 대인관계 유능성 총 간접효과	-.18***	-.28	-.07

** $p < .01$. *** $p < .001$.

하량은 .53 ~ .84 의 값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 되었다. 또한 잠재변인 간 상관의 절대값이 .03 ~ .61로 .90을 넘지 않아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잠재변인 간 상관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5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측정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검정하였다.

4. 구조 모형의 검정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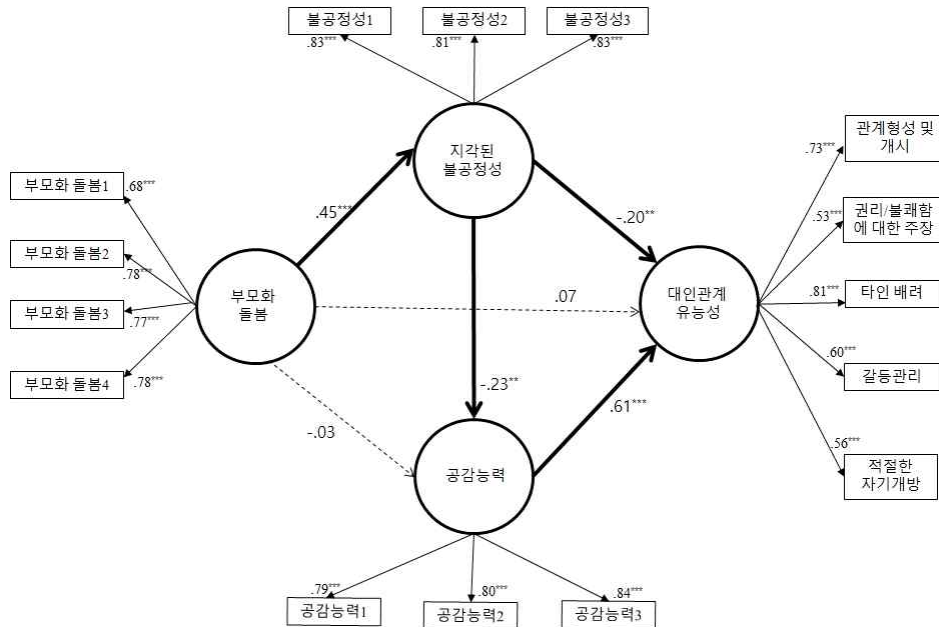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224.776(df = 80, p < .001)$, CFI = .932, SRMR = .056, RMSEA = .075(90% CI = .063 ~ .086)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 모형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화 돌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mma = .07, ns$). 반면 부모화 돌봄에서 지각

된 불공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gamma = .45, p < .001$), 지각된 불공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0, p < .01$). 이는 부모화 돌봄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부모화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불공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지각된 불공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화 돌봄에서 공감능력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gamma = -.03, ns$), 공감능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61, p < .001$). 이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부모화 돌봄이 공감능력을 거쳐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각된 불공정성이 공감능력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beta = -.23, p < .01$), 공감능력이 지각된 불공정성과 함께 이중매개할 경우에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

5. 매개 효과 검증

부모화 돌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을 거쳐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지각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효과와 부모화 돌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단순매개효과는 제외하고 검정을 실시하였다. 원자료($N = 325$)로부터 무선 표집하여 생성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Bollen & Stine, 1990). 검증결과, 모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

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효과와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3 참고).

6. 다집단 분석

형태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 간 요인구조의 동일성을 살펴보기 위해, 형태동일성의 검정을 진행하였다.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여,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chi^2 = 291.15(df = 168, p < .001)$, CFI = .942, SRMR = .061, RMSEA = .07(90% CI = .05 ~ .08)).

측정단위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다음 단계로, 측정모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df	CFI	SRMR	RMSEA (90% CI)
형태동일성모형	291.150	168	.942	.061	.067 (.054 ~ .080)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	312.558	179	.937	.078	.068 (.055 ~ .080)
부분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	304.828	178	.940	.072	.066 (.053 ~ .079)

형 상의 요인 부하량이 집단 간 동일한 값이라는 제약을 추가하여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확인하는 X^2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두 모형 간 유의미한 X^2 적합도 차이를 보여, 측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했다($\Delta X^2(11) = 21.41, p < .05$). 모든 요인부하가 집단 간 동일하다는 측정단위동일성은 실제 상당히 확보되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집단 간 일부 모수가 다를 수 있음을 허락하는 부분측정단위동일성 검정을 진행하였다(Byrne, Shavelson, & Muthén, 1989). 이에 따라 형태동일성 모형의 요인부하 추정치 중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인 관계 형성 및 개시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요인부하를 두 집단 간 다르다고 가정하여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형태동일성 모형과 X^2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부분측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었다($\Delta X^2(10) = 13.68, p > .05$).

구조계수동일성 검정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화 돌봄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지각된 불공정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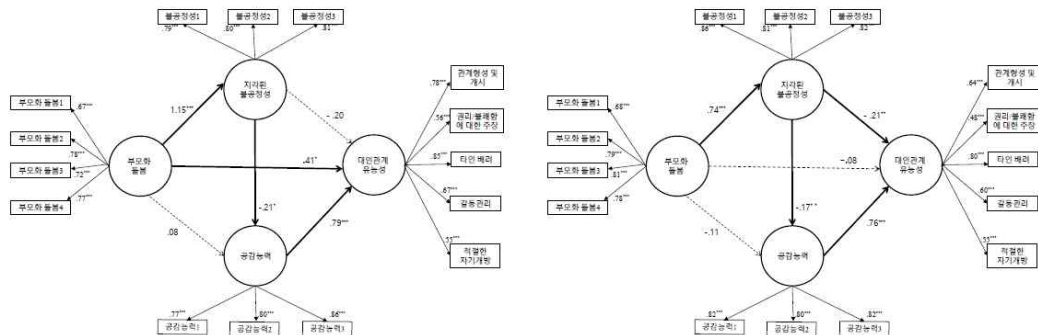
공감능력의 단순매개 경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 경로에 동등제약을 설정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계수 동일성 모형의 X^2 차이를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제약을 설정하였던 모든 모형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모든 경로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구조계수동일성 결과는 표 5,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정

각 성별 집단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남자, 여자 집단에서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효과와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부모화 돌봄이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을 차례로 이중매개하는 경로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효과는 여자 집단에서만 경계적 유의수준에

표 5. 구조계수 동일성 경로들의 적합도 지수

		X^2	ΔX^2	df	Δdf	CFI	SRMR	RMSEA (90% CI)	X^2 차이검정 p-value	판정
부분측정단위동일성 모형		304.83		178		.94	.07	.07 (.05 ~ .08)		
구조계수 동일성 모형	1 부모화 돌봄 → 대인관계 유능성	385.92	81.09	195	17	.91	.09	.08 (.07 ~ .09)	$p < .001$	기각
	2 부모화 돌봄 → 지각된 불공정성 → 대인관계 유능성	384.88	80.05	196	18	.91	.10	.08 (.07 ~ .09)	$p < .001$	기각
	3 부모화 돌봄 → 공감능력 → 대인관계 유능성	382.91	78.08	196	18	.91	.09	.08 (.07 ~ .09)	$p < .001$	기각
	4 부모화 돌봄 → 지각된 불공정성 → 공감능력 → 대인관계 유능성	385.04	80.22	197	18	.91	.10	.08 (.07 ~ .09)	$p < .001$	기각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된 수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다집단분석 (좌: 남자 집단, 우: 여자 집단)

표 6. 성별 집단 간 매개효과 검정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화 돌봄 → 지각된 불공정성 → 대인관계 유능성	남자	-.09	-.187
	여자	-.07†	-.130
부모화 돌봄 → 지각된 불공정성 → 공감 능력 → 대인관계 유능성	남자	-.10**	-.171
	여자	-.05*	-.094
부모화 돌봄 → 대인관계 유능성 총 간접효과	남자	-.16	-.322
	여자	-.16*	-.286

† $p < .10$. * $p < .05$. ** $p < .01$.

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자집단과 차이를 보였다(표 6 참고).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부모화가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성별에 따른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또 다른 변수의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정서와 욕구를 희생한 채 가족을 돌보는 경험은 대인관계 기술을 부적절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Castro et al., 2004; Wells & Jones, 2000).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화 돌봄을 통해 인정과 지지를 받을 경우,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강선모, 2015; Kuperminic et al., 2009).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유의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다집단 분석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 경로임을 보아 이는 성차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경로와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각된 불공정성의 단순매개효과는 부모화 돌봄이 지각된 불공정성을 거쳐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화 돌봄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헌신적 돌봄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는 가족 구성원 간 주고받음이 상호호혜적이지 못하다고 지각하고, 관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Jankowski et al., 2013). 이러한 부정적인 도식으로 인해 개인은 타인 및 관계에 대한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며(Hooper, 2008; Katz & Nelson, 2007) 실존적 대인관계의 경험이 부족하게 되고, 나아가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도 어려워지는 것이다(Chase, 1999; Kuperminic et al., 2009). 부모화 돌봄에 따른 지각된 불공정성은 공감능력을 매개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화 돌봄에 따른 지각된 불공정성은 지속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켜 정서인식을 어렵게 하고(Jankowski et al., 2013; Toro et al., 2018), 관계에 대한 부정적 도식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온전한 지각 및 이해를 힘들게 하여(Burnette et al., 2009) 개인의 공감능력 발달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대인관계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감능력은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단순매개하지는 못했다. 먼저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부모화 돌봄이 공감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화된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만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소외시키고(Byng-Hall, 2008; Wells & Jones, 2000), 양육자로부터도 적절한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을 위한 정서적 기반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Jessar et al., 2017).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과 결속감을 느끼며 긍정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Aldridge, 2006; Hardway & Fuligni, 2006). 이는 부모화 돌봄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 경험, 긍정정서 등의 조절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추후 연구에서 두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화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DiCaccavo, 2002;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다. 주요 변인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불공정성에서 여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결과, 부모화 돌봄이 지각된 불공정성을 매개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간접 경로와 부모화 돌봄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직접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지각된 불공정성을 매개로 한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간접경로에서 남녀 집단 모두 부모화 돌봄이 지각된 불공정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여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불공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구 가설과 일치한 반면 남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불공정

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화 돌봄에 따라 불공정성을 지각하였을 경우, 여성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각된 불공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젠더화된 사회는 남성은 독립적, 성취적 특성에, 여성은 관계 지향적, 양육적 특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기대한다(Romero & Pérez, 2016). 사회적 기대에 따라 남성은 자신만의 개성, 성취로, 여성은 관계 내 자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 역동이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방희정 등, 2007). 부모화 경험에 따른 지각된 불공정성 또한 부적절한 가족 내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관계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기 어렵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석미정, 2017;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Murdock, 2014)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최인희, 김현주, 2017)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자기 표상 및 관계 도식에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까지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다(석미정, 2017; Edelman, 2006). 이에 비해 남성은 관계 외적인 요소에서 주요하게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에(Vafaei et al., 2014) 부모화 돌봄에서 불공정성을 지각하더라도 자기개념 및 대인관계 능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자기개념의 손상에서 비롯되는 수치심이 남성은 도구적 성취의 실패에서, 여

성은 관계의 실패에서 유발된다는 선행연구 (Benetti-McQuoid & Bursik, 2005) 또한 여성이 지각된 불공정성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부모화 돌봄에 의해 지각된 불공정성은 남성에게는 단순히 가족 돌봄 현상에 국한된 경험일 수 있으나, 여성에게는 자기 개념 및 사회적 영역에서도 위협적인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이다감, 2019; Telzer & Fuligni, 2009).

한편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한국 여성은 부모화 돌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남자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의 권력이 배분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의 통솔을 따르도록 요구받는 양상을 보인다(임인혜 등, 2018). 이러한 문화는 가족의 영속을 위해 여성이 가족에 예속되어 희생하기를 요구하며, 현모양처, 효녀 등의 프레임을 통해 여성이 가족 내에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종용한다(안숙영, 2018). 때문에 여성은 더욱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에 국한시켜 갖게 되는 것이다(장영란, 2008). 최근 여성의 해방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성에게 가족가치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한국 가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오늘날에도 한국 여성은 가족 체계 내 경험하는 불공정성에 취약할 수 있다(박종서, 2013;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임인혜 등, 2018). 종합하자면 가족을 우선시하고, 돌보기를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은 더욱 가족 중심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가족 관계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화 돌봄으로 인한 지각된 불공정성은 곧 자기의 부정 및 위협으로 경험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건강한 자기로 서기 어렵게 하며, 이는 대인관계 능력에 또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직접경로에서 남자 집단은 유의미한 정적 경로, 여자 집단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부적 경로의 남녀 간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부모화 돌봄 경험은 자녀의 부정적 발달을 예측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돌봄 경험을 통해 인정과 보상이 주어질 경우, 책임감 고취(Tompkins, 2007), 자율성 및 주도성 발달(문은미, 최명선, 2008; Hardway & Fuligni, 2006) 등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강선모, 2015).

본 연구에서 부모화 돌봄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이진 않았으나, 이는 돌봄 경험의 세부적 속성을 담아내지 못한 척도의 한계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 동일한 부모화 돌봄일지라도 아들에게는 자율성, 권위가 인정받는 경험일 수 있지만 딸에게는 인내, 희생, 순종이 요구되는 돌봄 경험일 수 있는 것이다(김선희, 2013; Murdock, 2014). 특히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 유형(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 개방)에서 주도적인 행동이 강조됨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돌봄 경험에서 남성은 관계 내 주도적 역할을, 여성은 수동적 역할을 학습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함께 보고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화를 부모화 돌봄과 지각된 불공정성으로 구분하여 현상의 경험 여부와 맥락을 고려한 주관적 해석 측면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특히 부모화 돌봄 자체보다도 부모화 돌봄에서 비롯된 지각된 불공정성이 이후 정서 사회성 발달에 주요한 역할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교적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문화에서도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재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는 원가족과의 역동(Bowen, 1982) 중 부모화 경험 또한 성인기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그 기제를 밝히고 있어, 과거 가족을 돌보았던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화 경험이 갖는 의미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국한하여 부모화 경험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모화는 장기적으로 고착된 역동일 수 있기에,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 부모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발달단계에서의 부모화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부모화 척도는 부모화의 표면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면적 속성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부모 상실, 맞벌이 가정 등의 가정배경, 부모화 행동에서의

자율성 및 권위 인정 여부 등에 따라라도 부모화 경험 이후 발달에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부모화의 이면적 속성에 대한 탐색이 더욱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맥락에서 부모화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해석하였으나, 실증적 근거는 미흡하다.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부모화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각된 불공정성이 특히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2011; 유순화, 2012). 지각된 불공정성이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로 경험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부모화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에서는 지각된 불공정성의 영향을 주요하게 다룰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선모 (2015). 부모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65-283.
- 강지희, 최명선 (2009).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6, 121-138.
- 김선영 (2017).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의 요인구조분석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 (2013). 감정의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 철학상담의 가능성-여성의 분노와 우울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9, 5-33.
- 김은경 (2011). 가정환경과 수치심, 죄책감이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 김은영 (2009). 청소년 부모화 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최상진 (2003). 여성의 효심에 관한 질적인 접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49-67.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 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종서 (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199), 28-38.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3), 23-63.
- 석미정 (2017).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가족건강성 지각 간의 관계. 교사교육연구, 51(3), 507-519.
- 이다감 (2019).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여성 심리 이해-여성 정체성 발달단계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21-45.
- 이장주, 최상진 (2003).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87-104.
- 임인혜, 윤민지, 유성경,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한국판 가부장 신념 척도 (PBS-K)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4), 125-143.
- 장영란 (2008).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딸의 원형적 이미지분석과 '효'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1-29.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51-76.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최인희, 김현주 (2017). 부모상실 만이의 부모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89-114.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허재홍, 이찬중 (2010). 공감지수 (EQ) 척도의

- 심리측정 속성. *인문과학연구*, 24, 183-200.
- Aldridge, J. (2006). The experiences of children living with and caring for parents with mental illness. *Child Abuse Review: Journal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15(2), 79-88.
- Allison, C., Baron-Cohen, S., Wheelwright, S. J., Stone, M. H., & Muncer, S. J. (2011).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 (EQ).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7), 829-835.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Anders, S. L., & Tucker, J. S. (2000). Adult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Personal Relationships*, 7(4), 379-389.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aron, R. A., & Tang, J. (2009). Entrepreneurs' social skills and new venture performance: Mediating mechanisms and cultural generality. *Journal of Management*, 35(2), 282-306.
- Benetti-McQuoid, J., & Bursik, K. (2005). Individual differences in experiences of and responses to guilt and shame: Examining the lenses of gender and gender role. *Sex roles*, 53(1-2), 133-142.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115-140.
- Bowen, M. D.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Burnette, J. L., Davis, D. E., Green, J. D., Worthington Jr, E. L., & Bradfield, E. (2009). Insecure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rumination, empathy,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3), 276-280.
- Burton, L. (2007). Childhood adultification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A conceptual model. *Family Relations*, 56(4), 329-345.
- Byng Hall, J. (2008).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fulfilling parental rol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30(2), 147-162.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 Castro, D. M., Jones, R. A., & Mirsalimi, H. (2004). Parentification and the impostor phenomen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3), 205-216.
- Cattell, R. B., & Burdsal Jr, C. A. (1975). The radial parcel double factoring design: A solution to the item-vs-parcel controvers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0(2), 165-179.
-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Sage..
- Demir, M., Jaafar, J., Bilyk, N., & Mohd Ariff, M. R. (2012). Social skills, friendship and happiness: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3), 379-385.
- DiCaccavo, A. (2002). Investigating individuals' motivations to become counselling psychologists: The influence of early caretaking roles within the famil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5(4), 463-472.
- Early, L., Cushway, D., & Cassidy, T. (2006). Perceived stress in young carers: Development of a measu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2), 165-176.
- Gable, S. L., Reis, H. T., Impett, E. A., & Asher, E. R.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28.
- Edelman, H. (2006). *Motherless daughters: The legacy of loss* (2nd ed.). Cambridge, MA: Da Capo Lifelong Books.
- Fonagy, P. (2005).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반건호 역). 경기: 빈센트(원서출판 2001).
- Fullinwider-Bush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Fincham, F. D., Paleari, F. G., & Regalia, C.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s, and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s*, 9(1), 27-37.
- Gable, S. L., Reis, H. T., Impett, E. A., & Asher, E. R.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28.
- Gray, B., Robinson, C., & Seddon, D. (2008). Invisible Children: Young Carers of Parent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The Perspectives of Professional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3(4), 169-172.
- Hardway, C., & Fuligni, A. J. (2006). Dimensions of family connectedness among adolescents with Mexican, Chinese,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246-1258.
- Hooper, L. M. (2008). Defining and Understanding Parentification: Implications for All Counselors. *Alabama Counseling Association Journal*, 34(1), 34-43.
- Hooper, L. M., Tomek, S., Bond, J. M., & Reif, M. S. (2015). Race/ethnicity, gender,

- par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Comparisons among a nationwide university sample. *The Family Journal*, 23(1), 33-48.
- Hooper, L. M., & Wallace, S. A. (2010). Evaluating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psychopathology correlat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1), 52-68.
- Hooper, L. M., Marotta, S. A., & Lanthier, R. P. (2008). Predictors of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childhood parentification: A retrospective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5), 693-70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nkowski, P. J., Hooper, L. M., Sandage, S. J., & Hannah, N. J. (2013). Parentification and mental health symptoms: Mediator effects of perceived unfairnes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Journal of Family Therapy*, 35(1), 43-65.
- Jessar, A. J., Hamilton, J. L., Flynn, M., Abramson, L. Y., & Alloy, L. B. (2017). Emotional clarity as a mechanism linking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7(3), 414-432.
- Jurkovic, G. J., Kuperminc, G. P., Sarac, T., & Weisshaar, D. (2005).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post-war adjustment of Bosnia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Abuse*, 5(4), 219-235.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Unpublished docu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A.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 Katz, J., & Nelson, R. A. (2007). Family experiences and self-criticism in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l of family stress, past unfairness, and self-esteem.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5(5), 447-457.
- Katz, J., Petracca, & Reabinowitz, J. (2009). A retrospective study of daughters' emotional role reversal with parents, attachment anxiety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and depressive symptom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 185-19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esten, J. (2004).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sex of subjec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71(2), 226-244.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22.
- Kuperminc, G. P., Wilkins, N. J., Jurkovic, G. J., & Perilla, J. L. (2013). Filial responsibility,

- perceived fairnes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Latino youth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2), 173.
- Lazarus, R. S., & Folkman, S. (1987). Transactional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s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141-169.
- Levine, A. (2009). *Parentification and adult psychosocial life distress*.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 Lough, S., Kipps, C. M., Treise, C., Watson, P., Blair, J. R., & Hodges, J. R. (2006). Social reasoning, emotion and empathy in frontotemporal dementia. *Neuropsychologia*, 44(6), 950-958.
- Murdock, M. (2014). 여성 영웅의 탄생: 움 심리학으로 읽는 강한 여자의 자기 발견 드라마. (고연수 역). *The heroine's journey*. 서울: 교양인(원서출판 1990).
- Riggio, R. E., & Reichard, R. J. (2008). The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s of effective leadership: An emotional and social skill approa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2), 169-185.
- Romero, M., & Pérez, N. (2016). Conceptualizing the foundation of inequalities in care 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2), 172-188.
- Shannon N. D. (2014). *Children as Adults: A Phenomenological Inquiry into the Process of Parentification*. Texas Tech University.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12).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 Switankowsky, I. (2000). Sympathy and empathy. *Philosophy Today*, 44(1), 86-92.
- Telzer, E. H., & Fuligni, A. J. (2009). Daily family assistance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from Latin American, Asian,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1177-1189.
- Teyber, E. (2006). 이혼가정 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성정현, 김희수, 박한샘 역). 청목출판사(원서출판 2001).
- Teyber, E., & McClure, F. H.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접근. (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역). Cengage Learning(원서출판 2011).
-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108-118.
- Toro, R. I., Schofield, T. J., Calderon-Tena, C. O., & Farver, J. M. (2018). Filial Responsibilities, Familism,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Latino Young Adults. *Emerging Adulthood*, 1-8.
- Vafaei, A., Alvarado, B., Tomás, C., Muro, C., Martinez, B., & Zunzunegui, M. V. (2014). The validity of the 12-item Bem Sex Role Inventory in older Spanish population: An examination of the androgyny model.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9(2), 257-263.
- Wells, M., Glickauf-Hughes, C., & Jones, R. (1999). Codependency: A grass roots construct's relationship to shame-proneness,

- low self-esteem,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1), 63-71.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1 차원고접수 : 2019. 04. 08.
수정원고접수 : 2019. 05. 27.
최종게재결정 : 2019. 06. 19.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nfairness and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Experience i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 A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

Park, Seonyeong

Yang, Sujin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experience in parentification (CEP)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ith perceived unfairness in parentification and empathic ability as mediators.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was performed sequentially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25 undergraduate students and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M-Plus 6.12.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nfairness and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 moderator analysis by gender revealed significantly different pathways. The male group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direct path from CE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while the female group did not. The indirect path from CE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was perfectly mediated by perceived unfairness for females only. These results showed that parentification can have varying impacts on social development, particularly when its sub-constructs are divided into objective (caregiving) and subjective experience (perceived unfairness) categories. We also discuss how gender-associated socialization practices moderate the pathway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words: parentification, perceived unfairness, interpersonal competence, empathic ability,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